



부산지역 교사 108명이 천성산을 살리기 위해 10월 17일 지울스님과 도룡농 소송 지지서명서를 발표했다.

“지울스님·도룡농을 살리자”

천성산 살리기 메아리 확산

10월 15일 시작된 도룡농 소송을 계기로 ‘도룡농과 22일째(25일 현재) 단식 중인 지울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새로운 생명 방생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원고적격심사를 남겨놓고 인간 법정에 살날을 기다리고 있는 도룡농에게 응원을 보내는 친구들이 늘고 있는 것. 17일 부산 경남 지역 교사 108인이 지울스님과 도룡농 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5일에는 종교인 100인과 교수 100인 언론인 100인이 동참해 도룡농 소송인단을 결성했다. 또

천성산 전국 비대위는 소송인단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를 통한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 중이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저지를 위한 부산교사 서언’

부산 경남 교사 108명 성명·거리 특강

종교인 100·언론인 100명 소송인단 결성

위한 교사 108인’은 부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목숨을 희박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소송인단 참여 문의(051)623-9220

이라며 “터널 공사로 살터를 위협받게 된 도룡농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교사 108인은 앞으로 환경과 생명 문제에 대한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지울스님이 단식을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길거리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울스님은 17일 “천성산에 살고 있는 도룡농과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본능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오계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금정중학생 257명 불자의 삶 서원

“저희 수계 제자들은 오계를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10월 22일 부산 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금정중학교 수계법회에서 257명의 수계자들은 성오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반야심경 봉독, 성오스님 법문, 수계 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수계 법회에서 성오스님은 “계를 받아 지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며 불제가 되는 첫걸음”이라며 “단 한가지



◆금정중 학생들이 교편사로부터 연비를 받고 있다.

통도사 박물관대 불화반

27일까지 작품전 열어

통도사박물관대학 불교회화과 불화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통도사상보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렸다.

석성스님과 조해종 강사의 지도로 불화 실기 위주의 수업을 받아온 수강생들이 직접 그린 팔공강, 관음보살, 반자초 등 불·보살상, 조사상, 신종상, 단청 등의 작품과 함께 석경스님, 한승구, 박장호, 하정진씨 등의 초대작도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4명의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이수증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전래 놀이 한마당

굴렁쇠 굴리기 등 50여종

부산불교어린이지도연합회(회장 지현)는 10월 19일 범어사 탐전에서 전래놀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어린이 5백여명이 참석해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50여가지의 전통놀이를 직접 해보며 즐거워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산가지 때어내기 놀이를 마친 인유태(유천사 어린이회) 어린이는 “친구들이랑 함께 놀이를 할 수 있어 너무 재미있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부활하는 전래놀이와 함께 탁본, 팔상도 그림 조각 맞추기 등 불교적인 내용도 포함했으며 다양한 단체 놀이를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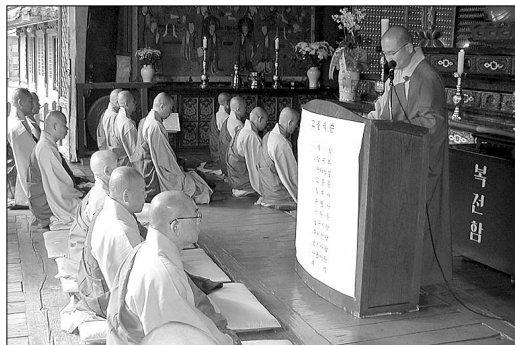
◆전래놀이 한마당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굴렁쇠를 굴리고 있는 모습.

중급지도자 과정 첫 연수교육

구족계 받은 스님 대상

팔공산 동화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중급지도자과정 연수가 처음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중급지도자과정 연수는 역량 있는 스님 발굴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다양한 강좌와 실수가 동화사 설립전에서 펼쳐졌다.



◆동화사에서 처음 열린 중급지도자 교육 연수.

이번 연수는 95, 96년 출가해 2000년 이전에 구족계를 받은 12명의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법론, 경학강의, 종교지도자론, 중무 행정 등 전문강좌들을 수강했다.

특히, 2001년

부터 시행된 승가고시에 의한 법계 품수 등 사찰의 주지소임이나 상좌를 두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행과정 이수가 기본 자격요건이 됨에 따라 이 같은 승가고육이 필수과정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무비스님은 “스님들이 교육과 수행으로 매진하면서 이 시대의 동량으로 육성될 때, 인권의 사표로서 스님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태풍 ‘매미’에 희생된 뉘 천도

부산 동명불원서 영산재 정기 시연

대한불교전통예술대학은 부산시 지정 지방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정기시연회를 10월 18일 동명불원에서 개최했다.

부산시 지정 지방무형문화재 제9회 보유자인 해강스님, 김해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 동명불원 주지 도관스님을 비롯 5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성 스님의 법문, 승무, 살풀이, 찬불가, 영산재 시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함께 마련됐다.

태풍 ‘매미’로 희생된 뉘들을 천도하는 의미를 더한 행사는 영산재 전수자인 진하스님과 그 수제자들이 마련

했다. 이날 시연회는 수화 통역을 하는 도원스님과 농아인 불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학장 진하스님은 “정기 시연회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인 영산재의 진수를 일반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행사 수익금은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환경 워크숍 개최

11월 14~15일 신홍사서

불교환경의제21 수립을 위한 제2차 불교환경 워크숍이 11월 14~15일 화성 신홍사에서 개최된다.

불교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2차 불교환경 워크숍에서는 1차 워크숍 및 본과별 의제초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 전문가, 신도단체, 불교환경단체 등 환경관련 주제들의 결집을 통해 지역, 종단 네트워크 형성 및 종단 총괄기능을 모색한다.

워크숍에서 이병인 교수(필양대 환경공학과)가 ‘불교환경의제21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중심으로’를, 염태영 사무처장(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이 ‘경험과 실천 나누기-의제21 수립 참여기’를 각각 발표하는 강연 시간도 마련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유철주 간사는 “2차 워크숍이 끝나면 의제 정책팀이 구성돼 올해 말 불교환경의제21 초안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의제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해운대 백사장서 팔관회

부불련, 1만여명 팔재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10월 19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제4회 팔관회를 개최했다.

어린이 사물놀이, 합창, 바라밀무용, 수화친환경합창, 영산재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천도 의식이 열린 식전 행사에 이어 펼쳐진 본 행사 팔관회에서는 불교연합회 증명고산스님을 계사로 1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팔재계를 받았다.

법고, 종승, 예불, 고불문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된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계법은 중생들로 하여금 삼계화락을 벗어나 불세계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며 “지혜와 선정의 무상 불도를 성취케 하는 이 계법을 받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계를 설했다.

이어 열린 점등식에서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설치된 연등에 환하게 불을 밝히며 유주무주 일체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팔관회는 태풍 ‘매미’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하루 한끼 금식으로 자비의 쌀을 모으자’는 보시운동을 통해 모은 쌀을 수재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박봉순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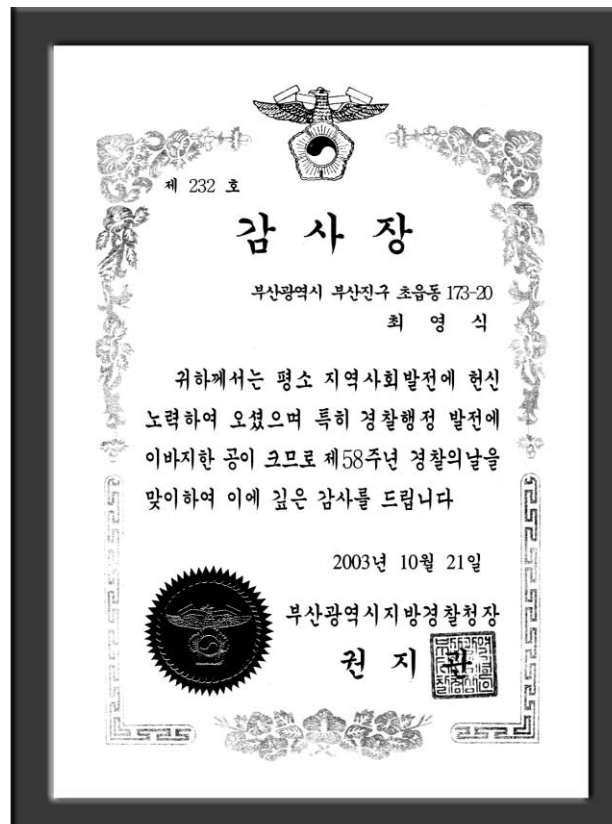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성(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목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목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1월 둘째주, 넷째주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수련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강간)을 해결하는 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부산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니다.